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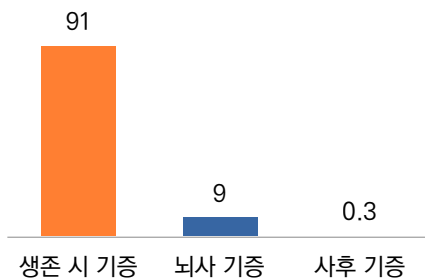


[장기기증 실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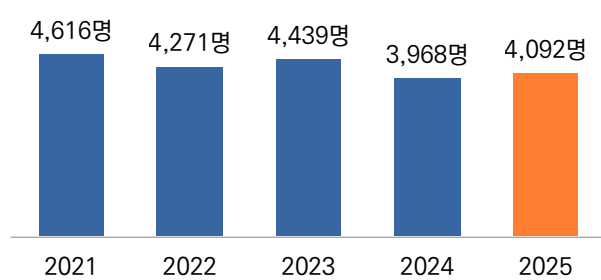
장기기증자 10명 중 9명(91%), '생존 시' 기증!

- 흔히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뇌사 상태나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, 실제 국내 장기기증의 대다수는 '생존 시 기증'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장기기증 유형 중 '생존 시 기증'이 91%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. 반면 '뇌사 기증'은 9%, '사후 기증'은 0.3%에 불과했다.
- 한편,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장기기증자 수는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. 2021년 4,616명에서 2024년 3,968명까지 감소했다가, 2025년에는 4,092명으로 전년 대비 약 3% 반등했다.

[그림] 장기기증 유형 (2025, 장기기증시점 기준, %)



[그림] 장기기증자 수* 추이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,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, 2026.0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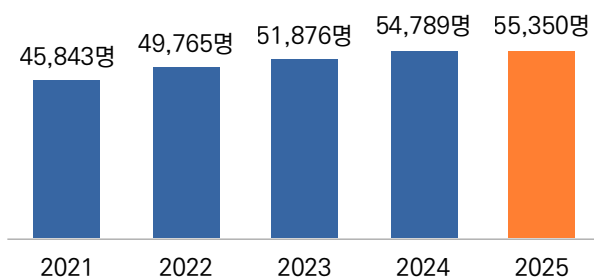
*장기기증자는 뇌사 기증, 사후 기증, 생존 기증(조혈모세포 기증)을 포함

Note)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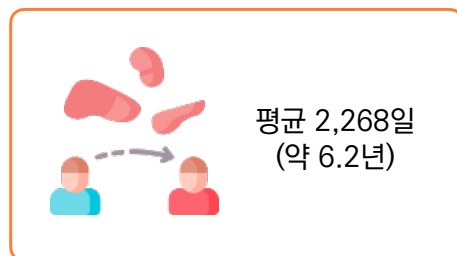
장기이식 대기자 평균 6년 기다린다!

- 장기기증자 수는 최근 5년간 4,000명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,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25년 55,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처럼 기증(공급)과 이식 대기(수요) 간의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환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.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,268일(약 6.2년)로 나타나,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.

[그림] 장기이식 대기자(수요자) 추이



[그림]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



※출처 :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,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, 2026.08.